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2/10℃ 목포 0/9℃ 여수 1/9℃
단기 4342년 (음력 10월 21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42호 1판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눈물의 호남선’ 이젠 없길

李대통령 “호남고속철 최대한 빨리” 약속 기대 크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 개통’ 대선 공약이 이미 물 건너간 상태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호남고속철 기공식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단 몇 개월이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가 예산 확보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애초 계획한 개통시기를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국이 이미 5년 전 고속철 도입에 따른 ‘교통혁명’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호남고속철도는 올해 뒤늦게 사업이 시작돼 지역적 소외감 가중은 물론 호남의 미래도 상대적으로 더디게 설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소외감은 교통부문에 있어 고속철도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경우도 1968년 서울과 부산 동시 착공을 통해 총 도로 연장 417.48㎞를 2년여 만인 1970년 7월에 개통했지만, 도로 길이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호남고속도로(대전~순천·251.8㎞)는 1단계(대전~전주)와 2단계(전주~순천) 등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기간도 3년이나 돼 결국 경부고속도로보다 3년이 뒤늦게 개통되는 등 호남 소외는 과거에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또한,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호남고속도로는 2차선으로 개통돼 13년 뒤인 1983년부터 1986년까지 4년 동안 구간별로 도로 확장공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도 했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도 지난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무려 22년 동안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올해 ‘첫 삽’을 뜬 반면 경부고속철도는 지난 2005년 1단계 개통 뒤에 올해는 2단계(대전~대구~경주~부산) 건설이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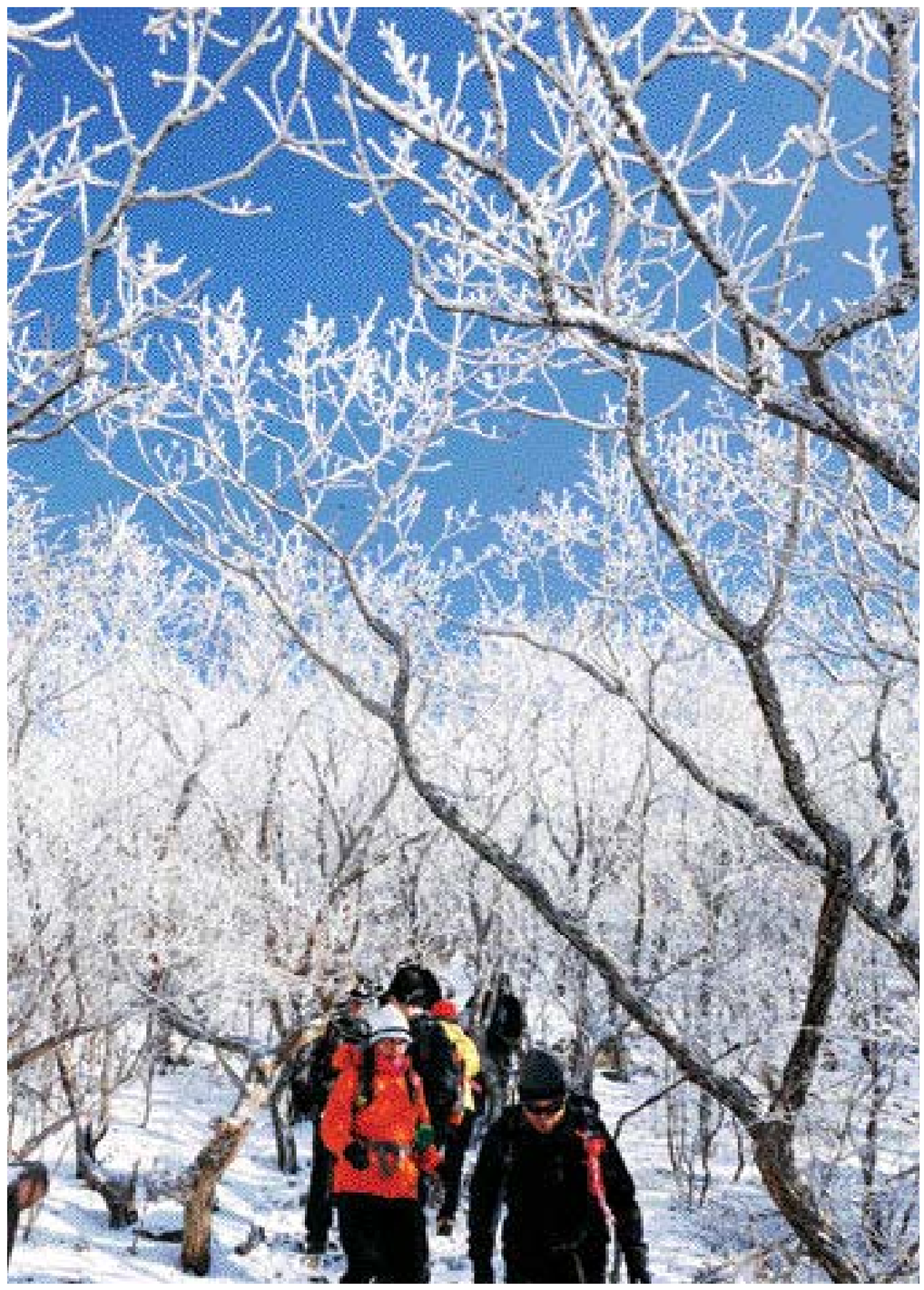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지역적인 소외감 등 ‘호남 홀대론’이 고개를 드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낙후된 지역경제도 이 같은 호남 소외를 전제로 한 SOC 사업 때문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의 완공이 늦어지면서 호남 발전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지난 4일 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또한, 국토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호남고속철도를 하루빨리 조기 개통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는 2017년 완공 목표인 광주~목포 간 2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동시 착공 등을 통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조기 개통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박사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며 “국가가 어떻게 든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을 세워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 大雪…무등산 눈꽃 피었네 대설(大雪)을 하루 앞둔 6일 무등산 서석대 입구 등산로에서 산행객들이 하얗게 핀 눈꽃길을 걸으며 겨울 산행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7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으며, 이후 당분간은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U대회 특별법’ 어물어물하단 낭패

조직위 구성 차질… 지역정치권 국회 통과 서둘러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특별법’ 제정이 4대강 살리기, 세종시 수정 등 대형현안에 밀려 장기 표류하면서 대회 준비에 연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여야 정치권에서 U대회 특별법 제정에 이견이 없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이 법안을 처리할 국제경기대회 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는 등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처리 예정이었던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구성안이 여·야 대치 등 국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8~9일 재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국제경기지원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특위에서 ‘2011년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에 광주 U대회를 포함시킨 가칭 ‘국제대회경기지원 특별법’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 정국상황과 정치 일정상 이틀만에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구성안 처리와 특위 개최, 법률안 심사,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지역 정치권이 법안 통과에 앞서 여권과 조율을 통해 사전에 특위의 인적 구성을 마치는 등 법제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U대회 주관기구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권고 규정인 ‘대회 유치확정 후 6개월 내 U대회 조직위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겨 국제적인 신인도에 타격을 입었다. 지난 5월23일 U대회를 유치한 시는 11월23일 조직위 구성을 마쳐야 했다.

U대회 조직위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대회 준비 일정도 촉박하게 됐다.

시는 내년 1월께 U대회 조직위가 출범하더라도 경기장·선수촌 건립, 대회 종합마스터 플랜 마련, 대회 운영노하우 축적을 위한 국제대회 개최 등 현안을 처리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U대회 법 제정이 더 이상 늦어지면 대회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지역 정치권에서 광주 지역 최대 현안인 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알 림

당신의 열정 光州日報에 도전하십시오

제58기 수습기자·경력사원 모집 9일 마감

모집부문	전형방법	자격및 대상
수습기자 ◎명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1977년 이후)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경력 사진기자 ◎명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종합일간지 사진기자 경력 2년 이상인자
경력 전산직사원 ◎명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종합일간지 전산조판 경력자 또는 전산 그래픽 경력자

〈공통〉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자는 병역필자
※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상식, 논문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광주일보(www.kwangju.co.kr) 참고 바랍니다

김연아 역전 우승

그랑프리 파이널 金

‘피겨여신’ 김연아(19·고려대)가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역전 우승하면서 내년 2월 벤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청신호를 밝혔다.〈관련기사 18면〉

김연아는 지난 5일 일본 도쿄 요요기 제1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23.22점을 얻어 전날 쇼트프로그램(65.64점) 점수를 합쳐 총점 188.86점으로 일본 안도 미키(185.94점)를 2.92점 차로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김연아는 이날 우승으로 2007~2008시즌 이후 2년만에 왕좌를 되찾았다. 동메달은 일본의 스즈키 아키코(174.00점)가 차지했다.

또한 김연아는 지난 2월 열린 4대륙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세계

선수권·그랑프리 1·5차 대회 등 올해 치른 5개 대회를 모두 석권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